

	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1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포 : 2019. 10. 29(화) (본문2) 	
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자리·사업화지원실 이혜령 실장 / 장연희 연구원 • ☎ 031-389-6321/6322 • jeri@kaia.re.kr/jangy@kaia.re.kr 	
보도일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19년 10월 30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즉시 보도 가능 	

“국토교통분야 중소·벤처기업의 기술성과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” 「국토교통진흥원-LH-건설연 업무협약(MOU) 체결」

-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(원장 손봉수, 이하 국토교통진흥원)은 한국토지주택공사(사장 변창흠, 이하 LH), 한국건설기술연구원(원장 한승헌, 이하 건설연)과 10월 29일(화) 서울 용산 LH에서 ‘국토교통분야 중소·벤처기업의 기술성과 활용촉진을 위한 업무협약’을 체결했다.
- 이번 업무협약은 세 기관이 중소·벤처기업의 우수기술 개발과 신기술 활용촉진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, 기존의 중소·벤처기업 우수기술 정보교류 중심의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기술분야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.
 - 주요 협력내용으로는 △중소·벤처기업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테스트베드 제공 △중소·벤처기업 기술사업화를 위한 과제발굴 △연구성과 및 신기술 소개를 위한 기술설명회 정례화 등이 포함되었으며, 모듈러주택, 스마트건설, 건설자동화 등 기술협력분야도 제시했다.
 - R&D 전문기관인 국토교통진흥원과 SOC 공기업인 LH,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인 건설연의 협력을 통해 국토교통분야 중소·벤처기업 중심의 기술사업화 과제를 발굴하고, 테스트베드를 통해 기술을 검증하는 등 중소·벤처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사업화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- 국토교통진흥원 손봉수 원장은 “대부분의 중소·벤처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이후에도 테스트베드현장을 찾지 못하거나 발주처와의 네트워크 부재로 기술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”이라며,
- “국내 최대 건설현장을 보유한 LH, 건설기술 연구의 중심인 건설연과 함께 중소·벤처기업이 보유한 연구개발성과 및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※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(www.kaia.re.kr)

국토교통부 산하 유일한 국가 R&D사업 전문기관으로서 4,822억원('19년 기준)의 국토교통R&D 예산을 집행·관리하고 있으며, 주요사업으로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(건설기술연구사업, 플랜트연구사업, 도시건축연구사업, 교통물류연구사업, 철도기술연구사업,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등), 건설·교통신기술 인증사업 및 기술가치평가 사업이 있다.